

2016 년 5 월 29 일(주일) 야고보서(21)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약 5:13-18)

<도입>

George Washington Carver, 농업과학자 땅콩 박사의 기도.

“나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 월 어느 날 새벽, 해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떠오르는 해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창조주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선 나에게 ‘너는 너의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네게 알맞은 것을 물어보아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여쭙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도 네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말고 네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너무나도 엄숙해졌다. 한참 만에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옳지 이제 됐다. 너는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1] 기도의 포인트

성도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벽이 없는 만남과 교제(소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강렬한 바람과 아름다운 말과 눈물 나는 감동이 있어도 그 기도는 무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가 실린 기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들어와 나의 세계에 공유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2] 본문의 강조점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해야 고난이 풀리는데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든 교우가 있을 때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만 단순히 병 낫기가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구에 대한 응답 이상의 축복이 열리고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16 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의 안내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자기 판단을 유보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인내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인내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주님께 몰두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순종을 말합니다(2 장의 행함 있는 믿음).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뜻과 소원을 내려놓고 순종과 믿음에 적극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무엇을 얻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 감추어졌던 유업의 축복을 얻음

야고보의 의도는 고난 속에, 질병 속에, 심지어는 죄 속에 숨겨진 유익을 찾게 하기 위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기도)을 통해 성도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고난 속에 감추었던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는 고난을 통해 얻는 삶과 역사에 대한 안목의 확대/전환, 그러므로 더 사랑할 수 있는 힘, 이해하고 받아주는 포용이 증폭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더욱 누리게 하고, 자유를 향한 용기도 갖게 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유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나와 공동체의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탓하고,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면 더 인간 중심적인 이기심과 자기 방어만 높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을 완전히 비껴가는 것입니다.

[4]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업의 축복을 얻은 대표적 인물

예수 그리스도!

**히 5:8-9**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큰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무후무한 우주적인 새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주와 왕으로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른 자들, 그리고 장차 따를 자들을 기억하시며 당신이 경험한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가지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눅 22:19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자리입니다. 기억의 의미는 ‘상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맺음>**

우리에게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늘과 맞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실제로 하늘의 축복을 얻고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을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의 경험적 축복이 성도님들께도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아팠던 나의 마음이 기억나지만 또한 영적 반전이 일어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결단을 세워봅시다. 기도는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마음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모두 기도의 훈련이 잘 길들여지도록 돕고 격려하여야 하겠습니다.